

0121 Morning scrum

이화중

주말에 사전과제를 보고 매우 좌절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며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많은 생각을 했다. 같은 조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잘할자신없다. 열심히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목표를 데이터 바인딩, rxjava, 자바8, mvp 패턴을 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내 수준 때문에 매우 촉박하고 긴장된 기분이다. 서울에 오랜만에(?) 살게되어 긴장도 된다.

이승우

저의 오늘 상태는 7~8정도의 괜찮은 상태입니다. 일찍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일찍온것을 보고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과제를 자바로된 코드로 짜본적이 없고, 과제를 보면서 mvc로 했었는데 mvp에 데이터바인딩, rxjava가 포함된것을 보고 분석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mvp, 데이터바인딩, rxjava를 열심히 할것. java로 할 것 같으니 java공부를 할생각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1인분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중성

첫날이라 긴장된 상황. 고모집에서 살면서 처음와봐서 조금 긴장되는 상태임. 이번 목표는 패턴이나 구조를 배우는것을 중점. 유지보수와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설계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싶은 목표. 모던 자바, rxjava를 잘 켜면 좋겠다는 생각. mvp를 처음써보는데 mvc보다는 깨끗해지는 생각, 신세계. 잘하는 사람들것을 보면서 열심히 1인분 만이라도 하겠다.